



광주와 전남지역 코로나 확진자가 1만5000명을 넘어선 9일 오후 광주시청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PCR검사를 받기위해 기다리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코로나 확진자, 숫자 세기도 숨차다

9일 광주 7418명·전남 7957명 등 1만 5375명 신규 확진 광주 9일만에 2월 확진자 육박... 이달 15만 추가 가능성도

광주·전남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연일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광주는 특히 이달 들어 불과 10여일 만에 확진자 급증세가 시작됐던 지난 2월 전체 확진자수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외국인 확진자도 전달 대비 10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지역 산업계도 인력수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광주 7418명, 전남 7957명 등 1만 5375명이 신규 확

진됐다. 특히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 이어서, 방역당국이 추가 확산을 막는데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여전히 집단시설인 병원·학교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 감염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에서는 이날도 요양병원 4곳에서 2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자치구별 신규 확진자수는 광산구가 2107명으로 가장 많고, 북구 1924명, 서구 1475명, 남구 1263명, 동구 644명 등 이었다.

방역당국은 당분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달에만 광주시민 15만명 이상이 감염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광주지역 신규 확진자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잡은 지난 2월 한달간 전달 1월(7279명)보다 10배 가까이 늘어난 6만 7553명을 기록한데 이어, 이달 들어 불과 9일만에 5만 3460명이 신규확진 됐다. 현 감염속도라면 이번 달에만 15만명 이상의 광주시민이 신규 감염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외국인 확진자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월별 외국인 확진자 현황을 보면, 지난 1월 268명에서 2월 2325명으로 급증한 뒤 이달 들어 9일만에 1127명이 확진됐다. 이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중소기업 중

일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과 함께 인력난 등을 호소하고 있다. 전남지역도 22개 전체 시군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다. 목포 소재 대학교에서는 25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순천·곡성·보성·무안·장성 소재 초·중·고등학교에서도 각각 8~1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여수 1천308명, 목포 1천116명, 순천 1115명, 광양 563명, 무안 531명, 나주 481명, 화순 437명, 영암 294명, 해남 282명, 완도 244명, 고흥 217명, 영광 188명, 담양 193명, 강진 149명, 보성·장흥 각 140명, 함평, 99명, 구례 96명, 곡성 88명, 신안 71명, 진도 65명 등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교육청,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지원 강화 교육지원청 관계자 연수... 지역별 맞춤형 복지 제공

전남교육청이 올 한해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사업을 13개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해 지역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해 교육복지사가 없는 학교의 취약계층 학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8일 전남도교육청은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교육지원청 복지담당 장학사 및 주무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에서는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노경은 협회장 등이 나서 교육복지안전망에 대한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망 실행 방안을 집중 교육했다. 특히 지난해 시범 교육지원청인 여수교육지원청 담당자의 사례관리 나눔을 통해 새로 시작하는 교육지원청에 도움을 줬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제42주년 5·18 기념행사' 시민 공모

행사위, 22일까지 단체·모임 기획
'제42주년 5·18민중항쟁 기념행사'가 시민 공모를 통해 진행된다. 9일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오는 22일까지 오월정신을 함께 이어가고자 하는 단체·모임이 직접 기획하는 5·18기념행사를 모집한다. 공모대상 기념행사의 주제는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완전한 진상규명의 의지를 담은 사업 ▲광주의 오월을 '변화된 세상, 새로운 시대를 여는 모두의 오월'로 만드는 사업 ▲다시 오월에서 통일로! 휴전선 철책을 넘어 오월의 대동세상을 밝히는 사업 등이다. 주제를 표현할수 있는 모든 형식의 사업이 가능

하며, 지원대상은 직접 기획하고 실행 가능한 단체·모임(5인 이상)이다. 지원유형은 '청소년·청년(1030세대) 중심형' 20개이고, '누구나 참여형'은 15개 등 총 35개 단체로 200만 ~ 300만원의 사업비(회의비·단순인건비·강사비·원고료·공연비·식사비·다과비·홍보인쇄비·물품구입비·임차비 등)가 지원된다. 신청은 5·18행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접수가능하다. 5·18기념행사위 관계자는 "오월정신을 함께 이어가고자 하는 단체·모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란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hb@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봄에 떠나는 그라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매주 금,토,일 광주출발 셔틀버스 운행

당일투어 1인 139,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199,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062-385-0515 | 아이티여행사: 062-382-8866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

시민참여 도서관 학교 운영 광주시립도서관

광주시립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2022년 시민참여 도서관 학교'를 운영한다. 주요 과정은 ▲줌 탐색하기와 실습하기 ▲자원봉사조직과 운영 ▲독서동아리 운영 ▲온라인 책놀이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내년 계획 세우기 ▲독서활동 기획하기 등이다. 특히 매월 1회 비대면 강의를 개설하고 작은도서관 활동 경험 정도에 따라 수강생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매달 초 광주시 대표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립도서관(062-613-7732)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모집 광주 북구 21일까지

광주시 북구가 청소년들의 의견을 청취해 청소년 관련 예산을 편성한다. 9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21일까지 제2기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위원을 모집한다.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에 뽑힌 청소년은 북구 청소년 관련 예산편성 시 의견을 개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다. 모집대상은 공고일 현재 만 9세~24세 이하로 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구 소재 초·중·고 교육법상 재학생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갖춘 청소년이다. 위원은 1년의 임기 동안 청소년 온라인 예산 학교 참여, 예산편성 관련 의견수렴, 청소년 정책 관련 사업 제안, 주민참여예산제 홍보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신청은 북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기획조정실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hb@kwangju.co.kr

무등산 평촌마을 나들이 어린이 참가자 모집 광주환경운동연합 11일까지

광주환경운동연합은 9일 무등산 평촌마을 숲과 들, 하천을 활용한 '자연나들이' 프로그램 어린이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인원은 초등학생 32명이며, 오는 11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자연나들이는 매월 넷째주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30분까지 평촌마을 일대에서 진행되며, 어린이 32명과 마을주민과 생태강사 6명, 청소년 생태리더 6명이 함께 한다. 참가를 원하는 주민은 광주환경운동연합(062-514-2470)으로 전화해 접수할 수 있고, 홈페이지(http://gj.ekfem.or.kr)로도 신청 가능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